

복고패션의 미학적 의미 분석

- 사후성(事後性) 원리를 중심으로 -

임 성 민[†] · 박 민 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1. 서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과 과거에 의지하고픈 욕망은 공유한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낯익고 친근한 것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로 끊임없이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향유하고픈 감정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와 함께 불변하는 것에 대한 식상함을 넘어선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디자인에서 이러한 요구는 '복고(retrospective, revival)'라는 형태로 재현되어지는데 과거에 대한 향수와 새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과거에 향유했던 사물을 현재 접하는 것은 과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사물(디자인)의 재현임에서 불구하고 이태을 로기나 개인적인 경험의 변화에 의해 느껴지는 '낯선(uncanny)'느낌으로 기존에 이미 존재한 것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하여 완전히 새로운(창조적인) 것에서 느껴지지 못하는 새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과거의 디자인이 다시 새로운 유행으로 입혀지게 될 때의 내재된 미적 성질들은 현재에서 서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과거의 것이 현재라는 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서사적 해석을 프로이트(S.Freud)는 '사후성(事後性)'으로 설명하였는데 패션에 나타나는 복고디자인을 이로서 풀어보고자 하며 나아가 복고디자인에 내재된 아우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필요에 의한 형태의 유지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디자인 영향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연구에서 말하는 복고의 정의는 대중이 특정시대의 디자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특정 디자인을 70년대 또는 80년대 스타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을 복고로서 정의한다. 또한 디자인의 재현이 아닌 오래된 중고를 입는 빈티지패션(vintage fashion)의 경우 대중이 과거에 향유했던 것을 '재현'한다고 인식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재현 개념으로 복고패션(retrospective)을 정의한다.

3. 본문

(1) 사후성(事後性)의 원리

[†]교신저자 E-mail : lmsungmin75@hanmail.net

프로이트는 유년기에 겪었던 정신적 충격이나 경험을 성장하면서 서사적으로 꾸미는 작용을 사후성이라는 심리기재로 설명하였는데, 기억에 있는 대상물 자체나 변형을 시간이 지나서 접했을 때의 사실이 대상물의 원초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경험이나 시간에 따른 기억의 개인적 차이를 수발한다. 또한 텍스트(text)는 그것이 원초적 형식이든 변형된 형식이든 흔적들로 얽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전(présentation)의 형식 속에서는 생각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텍스트는 현전하지 않으며 전사(轉寫)인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재구성에 의하여 의미의 침전물에서 시작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지시된 '현전'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대리적 보충을 통하여 구성된다. 즉, 프로이트에 따르면 기억은 망각이외에 전이나 억압과 같은 작업에 의해서 왜곡과 변형을 거치지 않은 과거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며 과거는 현재의 상황과 내적 욕구에 따라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것은 과거사건 자체가 아닌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현재의 이야기이다. '늑대 인간'을 포함한 프로이트의 다양한 사례 보고서는 기억과 서사의 사후적 원리에 따른 해석에 의한 조사들이다. 특정한 의미가 없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¹⁾ 그는 성장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의해 기억 대상이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없었던 감정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데올로기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새로운 언어와 지식을 제공해 원초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다. 따라서 '기억 흔적'으로 남아 있던 1차 사건을 그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고 쓰여지는 것이다. 즉, 과거는 현재가 원인이 되어 발견된다. 이는 시간적(과거-현재-미래), 인과론적(원인-결과)이 두 방향의 논리를 동시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시간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정들의 집적에 의한 기억의 연속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에 의해 과거가 현재 속에서 재현되며 다시 미래로 연결되는 창조적 통합체로서 창출된다. 나아가 하나의 사건은 훗날 새로운 경험이나 사건을 만나 수정, 변형됨을 의미한다. 변형은 본래 주어진 것과 사후적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무언과의 만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그에 따른 정신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즉, 사건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사건이 만들어지며, 근원은 변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즉, 과거는 보존되거나 단순히 기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현재적 이해 속에서 구성된다.²⁾ 정신분석학에서 '의미'를 말할 때 그것이 걸로 드러나는 가상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존재를 원인 지었다고 생각되는 즉 대치되기 이전의 의미로 해석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된다.³⁾

(2) 지나간 패션에 대한 향수와 시간에 따른 새로움으로서의 '복고패션'

이미 경험한 지나간 일에 대한 향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더욱 커지는 요구일 수 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과거를 연상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복고패션이라고 하며 패션에서 복고스타일은 주로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 또는 레트로 룩retro-look)이나 리바이벌 패션(revival-fashion)으로 불린다.⁴⁾ 복고패션이 하나의 키치(kitsch)로서 과거에 대한 회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복고패션은 역으로 거슬러서 해석되기보다 사후적으로 현시대의 사람

1) 라강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우리시대의 욕망 읽기*, (서울. 문예출판사, 1999)

2) 박찬부, *현대 정신분석 비평*, (서울. 민음사, 1996), p 285

3) 라강과 현대정신분석학회, p 27.

4) 류숙희, 박종희, "1990년대 패션의 복고풍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4권 2호, (1996), p 249.

들에 의해 이데올로기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현재 향유되는 진행 중인 디자인으로 나름의 아우라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미메시스(mimesis)를 새로운 존재의 재현이며 새로운 창조적 모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모방이나 재현이 인간의 본래적 경향이자 쾌감의 원천이라고 하였으며, 제한된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고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재현의 원(元)대상과 그 재현된 시적 내용을 구분하면서 예술을 철학으로 설명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편에 따르면 “이데아들의 첫 번째 모사물이 현실의 사물들이라면 예술가들에 의한 이것의 묘사는 예술작품으로 아우라를 가진다.”며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신적인 면을 파악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현(representation, mimesis)은 자연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모사를 뛰어넘어 그것을 새롭게 가져와 제시하거나 현시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재현에 대한 아우라나 내재된 미적가치를 논함에 있어 카타르시스라고 일컫는 감상자의 미적체험을 언급하였다.⁵⁾ 또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1790)에서도 “자연미란 하나의 아름다운 사물이며 예술미는 하나의 사물에 관한 아름다움 재현(표상)으로 나름의 미적가치를 가진다.”⁶⁾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의 재현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대에서의 재현은 하나의 기호로서 형태는 같지만 내재된 특성은 다르다. 즉 복고풍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 전형형의 유행이다. 첨단 유행을 쫓아가는 주류적 경향에 비해 복고풍은 하나의 비주류적 경향으로 출발하지만 문화현상에서 복고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새로움과 낯설음을 동반하는 창조이다. 과거는 과거 그 자체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현실적 요구에 의해 새롭게 변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복고는 과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과거의 새로운 창조이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현실의 결핍에 대한 위안이나 반항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퇴행은 아니다. 향수와 복고는 현실의 부족함을 메워 주고 현실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차별화 하는 기호로 나타난다.⁷⁾

4. 결론

본질은 해석에 의한 것으로 시대나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의복에서 디자인의 재현을 나타내는 복고패션은 형태적인 재현일지라도 이데올로기에 따른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지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복고라는 ‘재현’에 대한 내재된 가치로서의 아우라가 사후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기호는 의미와 해석의 문제이다. 60년대 당시의 히피패션과 현재의 히피패션 또는 ‘2005년대의 70년대 스타일’이라는 복고패션은 ‘1990년의 70년대 스타일’과 아무리 같은 디자인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경험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른 내재된 특성을 가지며 둘 다 각자의 아우라를 가진다. 기존에 존재했던 사물의 재현을 의미하는 ‘복고패션’의 내재된 미적특성은 현재 새롭게 부여된 것으로 다른 창조된 디자인과 같이 새롭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낯설음(uncanny)’에 의해 복고가 더욱 새로움을 느끼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이 더욱 새로움을 추구할 때 ‘복고’의 요구가 강해진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현진 (2003).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독일언어문학 제 22집. pp. 321-346.

5) 윤성우, *틀림즈-재현의 문제와 다른 철학자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pp. 14-15

6) 윤성우, *Op cit*, p 16

7) 현택수, *일상속의 대중문화 읽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1999). *우리시대의 욕망 읽기*. 서울: 문예출판사.
- 류숙희, 박종희 (1996). "1990년대에 패션의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권 2호. pp 247-264.
- 박찬부 (1996). "포스트모던 프로이트와 자기 반영적 리얼리즘." *문학동네* 6호.
- 서동욱 (2002). *들뢰즈의 철학-사상과 그 원천*. 서울: 민음사.
- 은영자, 한미경 (2001). "1990년대의 히피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2호. pp. 188-207.
- 윤상우 (2004). *들뢰즈-재현의 문제와 다른 철학자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천지영 (200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현택수 (2003). *일상속의 대중 문화 읽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Freud, Sigmund (1997). *프로이트 전집 중 11권-늑대인간*. 김명희 옮김. 서울: 열린책들.